창세기 원역사 다시읽기

박원일(Aaron Park)

창세기 1-11장은 보통 '원역사'(原歷史; Urgeschichte, primeval history)라고 불린다. 이는 인류역사의 근원을 묻는 신화적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창세기 원역사의 의미는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의 신학적(정치적)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기보다는 창조와 타락이라는 도식을 통해 신약의 그리스도와 대속적 죽음을 마련하는 장으로 이해된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사영리 도식이다.

사영리(四靈理)의 문제점

사영리란 1951년 대학생 선교회(Campus Crusade for Christ; 일명 C.C.C.)를 창설한 윌리암 브라이트(Williaml R. Bright)의 슬로건으로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된다.

1.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요 3:16),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요 10:10).
2. (모든) 사람은 죄에 빠져(롬 3:23)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롬 6:23).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다.
3.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 (롬 5:8; 고전 15:3-6; 요 14:6)
4.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 (요 1:12; 엡 2:8-9; 요 3:1-3; 계 3:20).

20세기 초 유럽의 신정통주의(Neo-Orthodoxy)와 미국의 근본주의(Fundamentalism)가 당시 역사비평에 기초한 자유주의 신학 풍토에 맞서 일어난 것이라면, 이것의 대중판인 사영리는 2차 세계대전 후 대학가에 만연한 허무주의와 인간의 죄악상 속에서 새로운 영적운동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하다. 브라이트는 사영리를 통해 나름대로 자신의 신학을 정립하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성서를 일관성 있게 이해하고 있다. 이를 간단히 표기하면, 창조-타락-구속-심판의 도식이다. 본래 사영리에 의하면, 마지막 “심판”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으로 말하지만, 실제 대부분 교회는 이를 심판과 연결시켜 생각한다. 곧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죽음-영벌(永罰)이라는 것이다.

사영리가 기독교 이야기를 나름대로 정리하려 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갖는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첫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둘째 항목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하느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첫째 항목—하느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도 또 체험할 수도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 속하는 브라이트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

둘째로, 이와 관련해 사영리는 다분히 제국주의적 발상이다.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 고로 내 말을 들으라. 종교다원주의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오늘날 도를 더해가는 팔레스타인에서의 분쟁은 종교와 연관된 전쟁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1] 정치와 종교는 본래 분리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교분리를 주장하는 교회지도자들은 정치적 캠페인 이면에 숨겨진 종교적 이념을 간파할 필요가 있다. "하느님, 미국을 축복하소서"(God bless America)는 정치적 입장에 대한 종교적 정당화 작업의 발로이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

셋째로, 사영리에는 예수의 삶을 다루는 공간복음의 이야기가 전무하다. 위키백과(Wikipedia)에 따르면 기독교란 "나사렛 예수에 중심을 둔 유일신론적 종교로, 신약성서에 제시된 그의 삶과 가르침에 기초한다"(Christianity is a monotheistic religion centered on Jesus of Nazareth, and on his life and teachings as presented in the New Testament)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이 정의를 받아들인다면, 사영리는 예수의 삶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그 언어는 죽은 언어일 뿐만 아니라, 그 편협한 생각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음을 간파하게 된다.

이러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사영리가 기독교의 본질을 나름대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들의 신학하기 모델로 활용할 가치는 있다고 본다. 다음에서는 이들 핵심적 용어를 재해석하려 한다.

I. 창조

창조는 실존경험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뿐 아무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다. 그러므로 현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피는 것이 신학하기의 첫 번째 과제이다. 대부분 현대 번역에 따르면 하느님은 창조 이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논리적으로, 태초와 천지는 창조의 산물이다. 즉, 시간과 공간도 하느님의 창조물이라는 생각이다(*creatio ex nihilo*). 이럴 경우, 2절에 있는 혼돈과 공허, 어둠과 깊음은 절대자 하느님의 창조의 연속/결과로 받아들이기에는 신학적으로 무리가 있다. 반면 유대인 번역본에는 하느님과 땅/공간(raw material)이 공존하고 있었다.

> When God began to create heaven and earth--the earth being unformed and void, with darkness over the surface of the deep and a wind from God sweeping over the water--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TNK; cf. NRSV)
>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셨을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바람은 물 위에 움직이고 있었고[2]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1) "Why the Middle East Crisis Isn't Really About Terrorism:" in *Time*, August 7, 2006. "By failing to make distinctions between groups--differentiations that are clear to people who actually live with these various conflicts--Bush feeds Muslim paranoia that his war on terrorism is just a cover for a war on Islam. (각종 분쟁과 이해관계 속에 살고 있는 이슬람 그룹들 사이에는 그렇게도 뚜렷한 차이점들을 분별해 내지 못함으로써, 부쉬는 테러에 대한 그의 전쟁이 실상은 이슬람교와의 전쟁임을 숨기고 있으며,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심한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

2) 히브리어 루아흐 엘로힘(רוּחַ אֱלֹהִים)은 "하느님의 바람" 혹은 "하느님의 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두 표현 모두

하시니, 빛이 생겼다.

창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구절을 일종의 주제(thesis statement)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창조의 시작인 2절은 혼돈, 공허, 어둠, 깊음이 하느님과 함께 존재했음을 나타낸다. 이는 신학적 문제라기보다는 지구/우주의 기원에 대한 성서와 과학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성서는 지구 (혹은 우주)의 역사를 6천년 정도로 생각하나, 과학에서는 지구의 나이를 약 45억년 우주는 112-200억년 된 것으로 추산한다. 성서와 과학의 이해에 약 백만 배 차이가 난다.

성서의 문자적 이해가 주는 신학적 맹점은 다음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창 1장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한다. 사람들이 저녁과 아침을 어떻게 알까? 해(태양)의 뜨고 지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해는 넷째 날에 지음 받았다. 그렇다면, 해가 창조되기 이전에 등장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5, 8, 13절)은 창조의 순서를 말하려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여기서 빛(3절)의 의미는 어둠과 대조되는 개념이며, 특히 태양(14-19절)을 앞선다.[3] 왜? 학계에서는 창 1:1-2:4a가 제사장들의 신학을 반영한 것으로 보며, 시기적으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작품으로 여긴다. 1970대 이후 이런 문서비평의 엄격한 이해는 점차 사라졌지만, 오경이 포로기 이후의 작품이라는 생각에는 큰 변화가 없다.[4] 역시 포로기 이후의 작품으로 여겨지는 제2 이사야에 따르면, 야훼는 더 이상 지엽적인 유대의 하느님이 아닌 보다 광범위한 고대 근동의 전국구 하느님으로 부상한다. 그 결과 페르시아를 이끈 고레스왕을 야훼의 "목자"(사 44:28), "메시아"(사 45:1)로 부르며, 이전에는 여러 신들이 분담했던 역할을 야훼 홀로 담당하는 유일신론적 이해를 보인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사 45:7; 비교. 신 32:8-9). 빛과 어두움은 후기 신학의 산물이며, 야훼가 우주적 절대자로 부상하는 것은 창조신학에 바탕을 둔 때문이다(욥기, 시편, 이사야).[5]

물 위에 운행한다는 표현과 맞물려 여기에 유일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해석상 어려움이 많다. 대다수 번역본은 "하느님의 영"으로 이해하여, 무질서와 어둠과 대조하여 앞으로 전개되는 (영적인) 창조적 힘을 반영한다고 본다. 하지만 "하느님의/으로부터의 바람"은 혼돈, 공허, 어둠, 깊음과 함께 단순히 창조가 시작되었을 때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굳이 기독교의 이원론적 (혹은 삼원론적) 이해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3) 해와 달과 별들은 모두 신으로 받들어지는 형상들이다. 특히 셈족 언어인 שֶׁמֶשׁ(해)는 고대 근동에 가장 널리 알려진 태양신으로,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로니아의 마르둑은 태양신으로 알려졌으며, 열왕기 하 23:11에 따르면, 요시아 왕이 태양신 제사에 쓰인 말들(horses)을 제거했고, 에스겔8:16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조차 제사장들이 태양신을 숭배했다고 기록한다.

4) John Van Seters, *Abraham in History and Tradi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5); idem, *In Search of History: Historiography in the Ancient World and the Origins of Biblical Hist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3; Winona Lake: Eisenbrauns, 1997); Hans Heinrich Schmid, *Der sogennante Jahwist*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76); Rolf Rendtorff (*Das überliferunsgeschichtliche Problem des Pentateuch*, 1977; Eng. trans., *The Problem of the Process of Transmission in the Pentateuch* (JSOTSupp 89; Sheffield: JSOT, 1990); Erhart Blum, *Die Komposition der Vätergeschichte* (WMANT, 67;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4; idem, *Studien zur Komposition des Pentateuch* (BZAW 189; Berlin: de Gruyter, 1990); Joseph Blenkinsopp, *The Pentateuch* (New York: Doubleday, 1992).

5) 창 1:4-5, 18; 출 14:20; 욥 3:4; 10:22; 12:22; 17:12; 18:18; 29:3; 30:26; 38:19; 시 18:28; 112:4; 139:11-12; 전 2:13; 사 5:20, 30; 9:2; 42:16; 45:7; 50:10; 58:10; 59:9; 렘 13:16; 애 3:2단 2:22; 암 5:18,

이 외에도 창세기 1-2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신학적 질문은 사영리가 답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잘 알려진 대로 창세기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창조 이야기가 실려 있다(창 1:1-2:3; 창 2:4-25).[6] 창 2:1-3의 안식일의 신학적 의미는 무엇일까? 왜 일곱째 날일까? 왜 하느님이 쉴까? 피곤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느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시 121:4). 또한 "하느님의 형상"(창 1:26-27)의 진정한 의미는?

왜 쓰였나?

모든 성서가 그렇듯, 창세기 1-2장은 고대인들의 신학하기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당시 유행했던 신학을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고쳐 쓴 것이다. 즉, 창조신화는 하느님이 쓴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자신들을 위해 썼다는 말이다. 그들은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밑거름으로 당시 신학사상에 투영한 것이다.[7]

그 이유는 현재/기존의 신학이 그 약효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고대근동의 신학에 의하면, 이스라엘/유다의 멸망은 야훼의 무능력에 기인한다.[8] 창세기 1장은 이에 대한 대항신학이다. 야훼는 태양신 마르둑에게 진 것이 아니다. 마르둑은 처음부터 신이 아니며, 하느님의 창조물이다. 지배질서 이데올로기를 배경으로 한 제국주의적 신학, 혹은 왕권 중심의 소수의 엘리트 신학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다수의 일반인 신학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반영한다.

창조설화의 신학적/정치적 의미

	신학하기 1	신학하기 2
창조신화 모델	바벨론 신화/에누마 엘리쉬	창세기 1-2장
하느님의 형상--신의 임재	왕/제사장/귀족지배계급 representational-individual	모든 사람"남자와 여자" relational-communal or functional
신학사조/성격	왕권/귀족 신학제국주의	일반인 신학민주주의
환경/생태학	파괴와 정복, 환경오염	친 환경적
사회계급	계급사화(hierarchy)	평등사회
하느님의 역할	질서유지, 안녕	해방, 보호, co-workers
	정복과 지배를 통한 평화=> Pax Romana, "the Roman peace"	이상적인 삶--보기 좋았더라. 상생(相生)의 원리, 하늘의 도(道), 평화

20; 미 7

6) 이 둘에 나타난 창조의 순서는 매우 다르다: 인간의 창조 순서, 남자와 여자의 창조순서, 물/습기 등장 순서, 먹을 수 있는 식물 등.

7) 메소포타미아의 창조설화에 대해서는 에누마 엘리쉬(Enuma Elish), 길가메쉬 서사시(Epic of Gilgamesh), 아트라하시스(Atrahasis)를 보라. James B. Pritchard (ed.),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Third edition with supple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60-99, 104-106,

8) 필자의 다른 글, "구약과 히브리 성서" 참조.

인간의 역할/기능	노예, 신/왕의 소모품	Imago Dei => 소명(召命)
안식일에 누가 쉬는가?	하느님, 왕, 제사장, 귀족	모든 백성 (cf. 출 20:8-11; 23:12; 신 5:12-15)
현대 기독교 모습	제사장/성직자의 신학의 사유화	모든 신자들의 제사장직 역할
문제점	제국주의적 테러리즘, 여성 차별, 노예 문제, 사회 계급 ...the status quo	나름대로 자신들의 기독교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다른 종교/신학	정복과 선교의 대상	이웃 종교/다른 신학진리, 대화를 통해 서로 배움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가 고대근동의 신학에 기초한 유대 제사장 계급의 신학 다시하기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해석은 독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왕권신학과 같은 상류계급과 출애굽 전승에 기초한 평민들 신학에는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큰 차이가 있다.
한 예로, 하느님의 형상/이미지(Imago Dei; 1:26-27; 5:1; 9:6)은 왕권신학에 따르면 하느님의 대표자이다. 곧 왕이 하느님의 형상/이미지라는 논리이다. 그렇지만 출애굽 전승에 기초한 신학적 입장은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입장이다.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하느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다.

II. 타락: 선악과를 따 먹어서 죄다?

> 죄는 여자로부터 시작하였고, 우리의 죽음도 본시 여자 때문이다(집회서 25:24).
>
>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

창 1:1-2:3과 창 2:24은 둘 다 창조에 관련된 이야기이지만, 창 2:4 이후는 창세기 3장과 더불어 다루어야 한다.[9] 평신도 성경공부 시간에 창세기 3장에 대해 나름대로 이해하는 바를 말하도록 한 적이 있다. 가장 흔한 대답이, 뱀, 사탄, 거짓말, 사과, 창조주 하느님, 전지전능, 원죄, 죽음 등이었다. 무엇이 문제일까?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이것들을 믿고 있지는 않았다. (혹은 이런 믿음이 신앙생활에 아무런 차이를 가져오지 못했다.)
실제로 성서를 읽어보면, 등장인물의 성격과 역할이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을 사탄과 결부시키지도 거짓을 말하는 자로 설정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뱀은 진실을 말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창 3:5). 3장 22절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라고 적고 있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뱀이 "간교"하다고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아룸(ערום)의 뜻은 ①"영리한/슬기로운"(잠 12:16, 23; 13:16; 14:8, 15, 18; 22:3; 27:12) 혹은 ②"벌거벗은"(창2:25)이며, 어떤 의미로든 창조의 능력과 관계된다.

아담과 여자가 먹은 과실은 사과가 아니다.[10]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다. 하느님은

9) 창 2:4b-4:26은 J-문서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내용상 사건의 전개가 에덴동산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10) 이는 아마도 아담이 사과를 삼키다 목에 걸렸다는 전설(Adam's Apple)에서 비롯된 듯하나, 성서의 내용과는

결코 전지전능한 하느님으로 그려져 있지 않다. 하느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창 3:9), 실과를 먹었는지(3:11), 또 가인이 어디 있는지(4:9)에 대해 묻는다. 알고 있으면, 물을 필요가 없다. 또한 하느님의 공들인 창조의 작품은 결코 완벽하지 못했다. 인간은 처음부터 온전하지 못했다(창 6:5-7; 8:21).

왜 생겼나? 신학하기의 한 도식--예수의 (삶과) 죽음의 이해

그럼 왜 원죄와 심판이라는 도식이 생겨났을까? 어거스틴의 원죄론은 차치하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인이란? 앞에서 언급한 대로, 기독교란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 기초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예수의 십자가처형과 함께, 모든 제자들이 떠났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의 죽음은 그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 주었다. 예수의 삶의 의의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예수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인해, 또 그로 말미암은 기독교신학의 성향에 따라 창세기 3장이 달리 이해된다.

기독교 초기에는 예수를 이해하는 최소한 세 갈래의 움직임이 있었다. 첫째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초기 기독교 (예수 운동의) 모습으로, 실상은 유대교의 한 형태였다. 이들은 예수 (혹은 천사)의 명령과는 달리 갈릴리(마 26:32; 28:7, 10; 막 14:28; 16:7)가 아닌 예루살렘에 둥지를 틀었다(눅 24:52; 행 1:12).[11] 예수의 죽음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한 상류신학에 도전함으로써 이들의 정치적 후견인으로 있던 로마제국에 의해 제거된 갈릴리 농민운동/신학운동 이었다. 이 경우 선악과의 의미는 특별히 "기독교적"이어야 할 이유가 없다. 둘째는 영지주의 성격을 띤 기독교 형태로, 선악과는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거쳐야하는 깨달음을 상징한다. 예수의 죽음은 승리요, 완성이며(요 3:14; 19:30), 거짓 옷을 벗고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유다복음).[12] 셋째는 바울의 입장으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악성을 부각시켰다. 롬 5:12에서처럼, 예수는 둘째 아담으로 모든 인간의 유형이다.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차별화하고 있다(롬 5:12-21; 고전 15:22, 45).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를 앉고 산다. 비로소 선악과와 원죄의 도식이 마련되었다. 이런 기독교신학의 유물은, 필연적으로 쓸모없는 인간/기독교인을 낳았다. 곧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의 달성이다.

그럼, 여기서 탈출하는 길은?

스퐁 감독은 그의 책 『기독교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에서 기존의 신학하기 모델을 벗어날 것을 촉구하고 있다.[13] 우리의 신학의 출발점은 내가 처한 현실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즉 성서

다르다.

11) 마 28:16에 의하면, 열 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 예수가 명한 산에 올라갔다고 기록하지만, 이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으로, 산을 중시하는 마태복음 저자의 신학적 입장으로 볼 수 있다(4:8; 5:1; 8:1; 14:23; 15:29; 17:1, 9; 24:3).

12) "그러나 네가 그들 모두를 능가하리니, 너는 나를 담고 있는 사람을 희생제사로 드릴 것이기 때문이다(But you will exceed all of them. For you will sacrifice the man that clothes me"). *The Gospel of Judas* (ed. Rodolphe Kasser, Marvin Meyer, and Gregor Wurst; Washington, D.C.: National Geographic, 2006), 43.

13) John Shelby Spong, 『기독교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김준우 옮김. 한국기독교연구소, 2001; 원제. Why Christianity Must Change or Die: A Bishop Speaks to Believers in Exile [San Francisco: HarperSan

는 하느님이 쓰지 않았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구약에는 원죄/타락에 대한 신학적 조명이 없다. 생사화복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이다

>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신 30:15-16).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름의 실과는 없다. 그렇다면 이 이름 짓기가 뜻하는 바는? 신학의 다양성에 비추어, 두 개의 서로 다른 사회계급의 입장에서 보자. 왕권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지혜는 왕에게 속한 것으로 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한 것을 암시한다.[14] 알면 다친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처형이 이에 해당한다. 서민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선악과는 분별력 혹은 재판과 관련이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하느님 영역이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는다함은 왕이 혹은 지배계급이 하느님의 대리자로서가 아닌 (하느님의 위치에 서서) 멋대로 판단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내 입장은?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문제들을 살펴야 한다. 먼저 성서기자들의 표현을 통해 (그들의) 사건/경험을 미루어 짐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낙원/에덴동산으로부터 추방이라는 문학적/신학적 장치를 통해, 현실이 이상에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둘째는 신화적 언어의 기능을 살펴야 한다. 생명나무, 선악과, 말하는 뱀은 문자적으로 이해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로, 제한된 하느님의 역할이다. 공동체 유산인 성서에서--마찬가지로 신학하기에서--하느님은 독자적으로는 문장의 주어가 되지 않는다. 예언자의 인용문(직접화법)이나 혹은 제3인칭(간접화법)을 통해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이...”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하느님이...” 혹은 “아모스에 따르면, 하느님이...”하고 말해야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만일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빠지고도, 뜻이 제대로 전달된다면, 여기서 하느님은 무의미한 말이다. (하느님으로부터 나 혼자만 받은 계시는 성서의 신학하기 방법이 아니라는 말이다.)

III. 심판 vs. 창조-재창조 도식 (Creation, De-creation, Re-creation)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조, 타락, 구원, 심판의 도식은 커다란 문제점을 앉고 있다. 먼저, 심판의 의미를 보자. 예수의 대속적 죽음이라는 신학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 약효에 기인한다. 아담의 원죄는 전(全)자동인데 반해, 예수의 대속적 죽음은 반(半)자동이다. 예수의 대속설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효과가 미치기 때문이다(사영리 성경구절 참조--요 1:12; 엡 2:8-9; 요3:1-8; 계 3:20). 이런 이유로, 사후심판의 필요성이 등장하게 된다.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이다.

Francisco, 1998])

14) Gale A. Yee, "Gender, Class, and the Social-Scientic Study of Genesis 2-3:" in Athalya Brenner, Ronald A. Simkins and Stephen L. Cook, eds., *The Social World of the Hebrew Bible: Twenty-Five Years of the Social Sciences in the Academy* (Semeia 87;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1999), 177-192.

또한 논리적으로, 창조는 전지전능한 하느님의 실패작이다. 이는 하느님의 온전함(integrity)과 관계된 문제이다. 창조의 선함과 죄/심판의 관계! 과연 내가 하느님이라면, 이런 비난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럼, 창세기 6-9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이야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다음 도표를 보자.

	창 1:1-2:3	창세기 6-9장
혼돈/ 창조이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תְּהוֹם) 위에 있고 (창 1:2a)	노아 육백세 되던 해 이월 곧 그 달 십칠일이라 그 날에 큰 깊음(תְּהוֹם)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7:11)
바람	하나님의 신(רוּחַ)/[바람]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 1:2b). "a wind from God" (TNK, NRS)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רוּחַ)으로 땅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감하였고(8:1)
물/ 창조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창 1:6-10)	깊음(תְּהוֹם)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8:2)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 1:31).— וַיַּרְא אֱלֹהִים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창 6:12a)— וַיַּרְא אֱלֹהִים
축복/ 창조이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번성하여땅에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지면의씨맺는 모든채소와씨가진열매맺는모든나무를너희에게주노니너희식물이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28-30). cf. 6:21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번성하여땅에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웠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찌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채 먹지 말것이니라 (9:1-4) cf. 8:17 ☞ 1:22
하느님의 형상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형상을따라우리의모양대로우리가사람을만들고 (1:26-27).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자기형상대로사람을지었음이니라 (9:6).

창조와 파괴(심판?)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아의 홍수는 깊음(תְּהוֹם)의 샘들이 터지며 일어난다. 곧 창조질서의 역행(逆行)이다. 또한 이를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바람(רוּחַ)이다. 이처럼 창조의 시작과 파괴의 시작이 같다. 홍수 이후는 어떤가? 하느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할 뿐만 아니라, 식물을--창세기 9장에서는 동물과 함께--인간의 음식으로 준다. 또한 창세기 신학의 근본인 "하느님의 형상"이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등장한다. 만일 노아의 홍수가 인간의 죄로 인한 심판을 그리고 있다면, 끈임 없이

등장하는 창조의 언어를 이해할 길이 없다. 하지만, 노아의 홍수를 재창조로 이해한다면, 기존의 사영리와 같은 죄와 심판의 도식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억압적이고 파괴적인 신학이 될 뿐이다.

창세기 6-9장의 홍수와 심판(?)이 아담과 그 후손의 죄악/악함을 없애지 못했다. 성서는 홍수의 원인으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었다고 적고 있다(6:5-7). 그 결과는? 인간의 생각은 여전히 악하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느님의 마음이다. 하느님이 또 다시 같은 이유로 홍수의 심판은 없으리라는 결심이다(8:21). 저자가 하느님의 마음을 (문자적으로) 알았을까? 심판/징벌이 본래의 역할(job-description)인 죄악의 소멸을 완수하지 못했다면, 여기서 파괴(de-creation)는 단지 재창조를 위한 과정이며, 필요"악"이고, 그 아픔은 부작용이다(렘 31:31-34; 겔 36:26).
그러면, 홍수가 왜 하느님의 심판이라고 여길까? "도둑이 제 발 저리다"라는 말이 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재난 중 가장 흔하고, 심하고, 무서운 재난이 홍수이다. 이 이야기는 고대 전 세계에 걸쳐 모든 민족과 문명에 공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그 중 후기 작품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잘못된 현실을 파악하려는 신학적 조명이다. 이를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할 수는 없을까?
성서에서 신학하기란 내 삶을 어떻게 꾸려 나가야 할지를 묻는 생활철학, 곧 의미 있는 삶 가꾸기이다. 그러므로 신학하기란 죽은 자들을 위함이 아니요 산 자들을 위해 존재한다. 신학하기에서 죽은 자/혹은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은 현재를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 혹은 위로를 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참고. 눅 13:1-5).

IV. 소명(召命)으로 읽는 창세기 원(原)역사(창세기 1-11장)

창세기 1-11장은 태초의 역사적 사건에 관한 객관적 서술이 아니라, 고대인들의 우주관을 통한 자의식/정체성 확립하기의 산물이다. 여기서 창조이야기는 그들의 이상적인 삶을 반영한 것으로, 이에 미치지 못한 현실이 또한 이상적인 삶에로의 복귀가, 타락과 구원이라는 도식을 통해 나타난다. 일부 기독교인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도식이 후세/내세에 이르러 완성되는 것으로 보나, 창세기에서는 그런 도식을 찾을 수 없다.

창조설화의 핵심은 소명(召命)이다. 태초에 하느님은 자기(들)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고 한다. 여기서 "하느님의 모양대로"가 갖는 정치/종교적 의미는 이미 살펴보았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왕 혹은 소수 지배계급에게만 적용되었던 “신의 대리자”라는 이해는 더 이상 관심거리가 아니다. 하느님의 형상은 다스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생에 있기 때문이다(막 10:43-44). 창세기에는 처음 창조 후, “심히 보기 좋았더라”(1:31)고 적고 있다. 누구의 눈에? 상식적으로, 하느님 운운할 수가 없다. 내가 하느님 생각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왕의 눈에? 그렇다면, 대다수 평민들은 이 성서를 보존하고 후세에 넘길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바로 내 눈에, 우리들의 눈에, 보기 좋다는 뜻이다.

모든 공동체에게 상생의 소명이 주어졌다면, 공동체 일원인 우리 모두는 각자의 소명을 앉고 태어났다고 볼 수 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의미를 알고 그에 맞게 살아감이 곧 소명의식이며, 에덴

을 돌보고 지킴이다(창 2:15).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책임의식이다.

타락은 이에 미치지 못한 결과이다. 내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미 나는 "타락"한 것이며, 세상은 "죄"로 물든 것이다. 이에서 벗어남이, 곧 소명을 회복함이 구원이다. 타락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현실을 통해 타락을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이에 대한 신학적 조명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어떤 이들은 인류의 조상이 지은 원죄가 지금까지 그 영향을 끼친다고 믿는다. 일 못하는 사람이 연장 탓하듯이, 자신의 불행한 현실을 남에게(아담, 원죄) 돌리는 경우이다. 이럴 경우, 대속자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잘못이 내게 있을 경우, 나만 고치면/회개하면/깨달으면 된다.

내 잘못이란? 창조설화를 통해 나타나는 인간의 존엄성 상실이다. 곧 "하느님의 형상"으로 옷입은 내가 소명(召命)을 상실한 것이다. 창조신학을 통해 반영된 질서, 번영, 풍요로운 삶에 내가/모두가/"남자와 여자"가 공헌한다는 생각이 소명신학의 핵심이다. 책임감과 자부심은 하느님의 형상을 가진 자의 의무이자 특권이다(창 1:26-28).

창조, 타락, 구원, 심판의 도식은 창조/재창조라는 도식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다. 우리들 상식으로, 잘못하면(범법행위), 야단맞고(형벌), 그 후 용서를 받는다(원상복귀). 사형당한 이를 계속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며, 그 후손에 까지 죄를 물을 수는 없다. 선악과 설화를 통한 참된 인간성의 상실과 그 결과로(타락), 아담과 그 후손은 야단맞는데, 그것이 노아의 홍수를 빌어 표현된다(심판). 그러나 노아 홍수의 궁극적 의의는 새로운 삶에로의 초대라는 재창조 이야기에 있다(구원). 그렇다면, 창세기 12장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삶의 이야기는 구원이야기로 점철된 신학하기의 연속이다. 원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학하기가 훨씬 용이해 진다. 말되는 기독교 이야기이다.

베드로가 묻는다: "세상의 죄가 무엇입니까?" 구세주가 답한다: "죄라는 것은 없다."[15]

15) Karen L. King, *The Gospel of Mary of Magdala: Jesus and the First Woman Apostle* (Santa Rosa, Calif.: Polebridge, 2003), 13.